

세계화와 가정생활의 방향

김 성 희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과)

1. 서론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남도 종가(宗家)에서의 생활체험을 문화관광상품으로 내놓았다. 전통사회의 문화인 대가족에서의 생활은 산업사회에서는 별로 쓸모 없는 불편한 유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시장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1987)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은 재택근무의 증가로 생산의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가정이 노동현장으로서 생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예측되어온 것이지만 가정이 문화상품을 창출하는 장소로서 생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가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며 자녀를 사회화하여 정체성을 부여하는 장소로 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소비욕구의 다양화로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상품이 되면서 가정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는 이제 가족원의 삶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새뮤얼 헌팅턴과 로렌스 해리슨(2001)은 문화적 가치가 인류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문화를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안병선, 2000). 문화는 세계화 속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보존되고 전승되는 일차적인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은 미래사회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며 생활은 중요한 산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하나의 체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현재 광역환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세계화'로 제임스 부캐넌(J. Buchanan)은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므로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신현중, 1998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그러나 가정은 문화가 형성되는 기초단위이므로 가정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결정짓고 생활을 변화시키는지 하나의 환경체

계로서 세계화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가정은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화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세계화의 의미와 영향

1) 시장의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는 맥루한과 피오레가 1967년 지구촌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한 이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속화되어왔다(신현중, 1998에서 재인용). 21세기의 세계화는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자본 시장 등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세계경제 거래에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현중, 2000).

일본의 경영가 오마에 겐이치(K. Ohmae)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각국의 국민경제가 동질화될 것”이라고 했다(신현중, 1998에서 재인용). 이런 동질화의 방향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가치 위에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는 자유무역, 완전경쟁, 경제적 효율 등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국가간, 기업간, 계층간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자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력과 자질, 생산성 향상을 강화하고, 기업가는 이윤의 극대화과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의 지향은 복지사회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며 세금이 적은 곳을 찾아 이동하므로 기업이 내는 세금과 노동자가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는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켜 부자와 빈자의 비가 20대 80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한스 마르틴·하랄드 슈만, 1998). 2001년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 인구 60억 중 12억 인구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한다(세계일보, 2002. 3. 25).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빈곤층과 중하위층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9.7%, 13.7%였으나 2000년에는 11.9%, 14.5%로 증가하였고 중산층은 54.8%에서 51.7%로 감소하였다(경향신문, 2001. 12. 12).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활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한스 마르틴·하랄드 슈만, 1998). 첫째는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나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가족을 희생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둘째, 기업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찾아 범지구적으로 자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대관계에 서게 되어 사회적 결속력이 파괴

되며, 자연파괴로 인간 생태계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계화는 긍정적으로는 효율의 극대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 이익 달성, 자유무역 이익의 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국가주권의 침해, 비교 열위 산업의 퇴출, 가계부도, 비자발적 이민, 인종차별,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한다(신현중, 1998).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런 부정적 결과 때문에 저항하는 반대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금융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의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둘 것을 제안하거나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는 제 3세계 국가와 반세계화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에이즈 치료제 등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개도국이 제한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제 3세계의 큰 짐인 외채에 대해서도 외채 탕감 운동단체인 주빌리 2000의 활약으로 1999년 독일 쾰른 주요 8국 정상회의에서는 중채무빈국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었다(한계례, 2002, 2, 9).

이러한 결과는 인권의 유지와 국가간 공존이 세계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노동자 개인의 힘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무한 경쟁으로부터 생태계 대란을 막고,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 문화의 세계화

정보통신의 발달과 상품의 대량생산 보급은 지리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감소시켜 문화의 세계화도 이루고 있다. 전세계 컴퓨터 정보의 80%가 영어로 쓰여지고 인터넷 통신의 90%가 영어로 전송되어 세계 언어가 통일되고, 세계 어디서나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어 문화가 동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국어실력은 100점 만점에 30점에 지나지 않지만(문화일보 2002, 1, 21), 영어조기교육을 위해 유아의 혀를 수술해주고 월 30-52만원의 교육비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화의 세계화 조류에 합류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02, 4, 2).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된 세계문화의 출현,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문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된다(장-피에르 바르니에, 2000).

그 이유는 첫째, 기업이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였다고 해서 소비도 균일해진 것은 아니다. 소비욕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특화된 소비층이 동호회, 쿨트 족 등으로 파편화되어 문화는 분산되고 있다. 틈새산업은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을 옵션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자동번역기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상의 영어 사용은 40%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안병선, 2000)

둘째, 같은 국가 내에서도 계층에 따라 문화적 자원을 소비하고 향유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 산업화된 문화의 세계적 유통에서 보여지는 국가간,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문화의 소비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문화적 결속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세계가 똑같은 스포츠 중계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해서 인간적 교류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

넷째, 자신만의 전통을 만들려는 집단과 개인은 언제나 존재한다. 편리한 식사를 위해 세계화된 햄버거를 먹지만 가족행사와 같은 정체성이 드러나는 때는 고유의 식사법을 택한다. 인간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과거에도 현재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대차, 지역차, 정치색, 패거리 문화 등 이런 분열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기존의 문화를 영속시킨다.

이런 여러 이유로 통일된 세계문화는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산업화된 문화적 상품을 통해 강요되는 서구 문화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부정할 수는 없다. 부유한 자본국가인 미국이 문화산업에서 패권을 행사하면서 세계의 문화산업은 미국의 문화를 모델로 단일화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들 상품의 세계적 유통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문화 제국주의는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추세와 역행한다(장-피에르 바르니에, 2000). 미국의 문화가 개인의 독창성과 표현욕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으므로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영화사가 한 편의 영화에 평균 약 5백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안병선, 2000),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의 상업주의에 영세한 지역 고유의 문화산업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문화의 획일성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체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지만 노동자나 일반인은 기업가만큼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러 다니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일하고 활동한다. 세계화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세계화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은 순종성의 추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적 특성과 세계적 보편성간의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를 구성하는 토대로서 고유성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상호존중하며 수용하는 것은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이 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자아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이라는 하나의 중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서 다중심을 갖는다(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세계 시민성의 보편성을 간직한 자아이면서 자신의 지방성을 동등한 또 하나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는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이면서 한국인이며 아시아인이고 세계인인 나가 될 것이다.

3. 가정생활의 방향

1) 바람직한 세계보편적 가정생활의 방향

세계화는 이윤의 극대화,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합리성과 효율성에 두고 경제주체가 세계적 영업활동을 도모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신현중, 1998).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두는 세계화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와 결속력 파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비대칭적 자원배분과 유대감 상실을 유발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우화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상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인간은 위기에 처하고 있다. 가정이 합리적 가치체계에 함몰되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세계화의 살인적 경쟁 속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가정자원을 배분하게 되면 가정생활보다는 경제활동에, 그리고 자녀보다는 성인 위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시간자원은 일하는 부모 위주로 조정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가정은 더 이상 보호와 애정을 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바쁜 생활 사이사이 드나드는 기차역과 같은 곳이 되고 만다(데이비드 엘킨드, 1999).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보다 개인생활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10년 전보다 59.7%에서 48.1%로 줄어들었고,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9%로 15% 가량 높아졌다(중앙일보 2002. 3. 36).

경제자원도 자녀보다는 성인 위주로 배분된다. 일체감의 가족 가치가 감소하고 이혼이 일반적 인 것이 되면서 결혼의 구속력이 없어진 부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물자와 경험을 저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더 자유롭고 저금에 의무감을 덜 느낀다. 2001년 가계빚은 가구당 평균 2,33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하여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경향신문, 2002. 3. 23).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자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산업사회에서 가장 착취당한다고 느꼈던 가족원은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직업적 사회적 욕구를 희생시켜야 했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가족의 불균형은 아동과 성인의 욕구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데이비드 엘킨드, 1999).

정보사회에 초래되는 장기적 위험은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의 상실이 아니라 개인적 고립감과 사회적 분절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족원간의 긴밀한 결속과 헌신은 사라지고, 개인의 자아성취와 욕구가 중요시되어 공동체 의식과 공동 선(common good)도 사라진다고 한다(데이비드 엘킨드, 1999). 세계화가 초래하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이혼, 재혼 등 가족을 해체시키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은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만드는 장소로서 그리고 개별성을 유지하는 장소로서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서선희, 1998:

루쓰 코완, 1997).

따라서 앤서니 기든스(1998)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성적 평등, 관계 있어서 상호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화된 가족을 이상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킨드(1999)는 새로이 대두되어야 하는 가족 형태로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성인 또는 부모의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책임있는 사랑이 존재하는 바이탈 가족(vital family)을 소개하고 있다. 민주적 가족과 바이탈 가족의 공통점은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가족의 유대감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화의 모습은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이다(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합리성과 효율성에만 근거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시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모든 인간이 자원을 함께 향유하는 것이 참된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바람직한 세계화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어렵지만 전 인류가 하나의 단위로 세계시민적 태도와 생활방식을 배우고 실천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책임의식 강조하기, 자기 성찰과 자아통제력 길러주기, 열린 마음과 관용성 갖추기, 자원절약, 자신감 길러주는 21세기에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주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유가호, 1998). 이러한 덕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가정에서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유대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용과 경청의 의사소통 방식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표준화된 생활방식으로 실천한다면 세계시민으로서 '나'가 '다른 자아'와 공생하는 태도가 길러질 것이다.

2) 특수한 가정생활문화와 상품화

문화의 세계화 결과는 문화 생산물이 세계를 잠식하거나, 전통문화에 침입하여 이를 변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준화된 문화 생산물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자본국가의 패권, 이로 인한 지역 시장의 몰락, 전통문화의 파괴, 생활의 획일화,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무한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전통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전 지구의 단일화 계획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패권국가의 위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어물이라는 관점에서 특수한 문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점유에 맞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 시민적 뿌리를 발견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안병선, 2000).

한국 청소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연구(1995)에 의하면 우리 전통을 익히고 이를 외국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의 발견과 유지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교육은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화시킨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이런 자유가 없다(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교육이 길러내는 지식, 기술, 능력은 다양한 삶의 범위를 넓혀주므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은 문화 유산이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보존되는 일차적 장소이다. 가정은 각 개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우리 것은 세계적인 것'이라는 관념 속에서 세계적인 것을 창조하고자 할 때 우리 것에 대한 영감을 물려주는 곳이다.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전달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 있어 가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의 환경친화적 산업이다. 문화산업으로 개발된 상품 중에는 고유의 가정 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다. 여행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일본의 여관은 종업원이 전통생활 방식으로 목욕물을 받아주고 이부자리를 펴주며 토속음식을 제공한다. 안동에서는 고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당에서 차례를 올리는 것을 보여주어 투숙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 즉 의·식·주생활 뿐 아니라 혼례와 상례 등 인륜지대사도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절차와 위생, 비용 면에서 편리한 시스템화된 문화상품이 유입될 경우 방치된 국내 시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시신을 캡슐화하여 로켓에 실어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장례식까지 개발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다(안병선, 2000). 21세기는 서비스가 산업의 축이 되는 시대이다. 가정에서 고유하게 제공되던 서비스의 많은 것이 문화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문화적 정서가 스며 있는 가정생활에서 아이템을 찾아 독창적 아이디어를 부가하여 세계인의 구매 욕을 창출할 때 경쟁력을 갖는 문화상품이 산출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세계화는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가 단일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화는 무한 경쟁과 생태파괴, 문화 제국주의를 낳고 빈곤과 획일적인 삶을 강요할 것이 우려된다.

바람직한 세계화의 목표는 모든 지역의 인간이 재화와 용역, 정보를 함께 향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 시민 공동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어렵지만 전 인류가 하나의 단위로 무한경쟁에 대해 인권을 수호하고 생태계 대란을 막으며, 개인의 차이를 수용하고 공동 선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켜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상적 세계화에 대한 기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교육으로 가능할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빈곤의 증가로 여성의 취업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기능, 자녀양육, 노인부양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므로 지역사회가 가족기능을 대신하는

지역가족 공동체 형성, 복지정책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의 무한경쟁으로부터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회사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는 의식하에 기업이 가정친화적 정책을 펼쳐갈 것이 요청된다. 빈곤한 80%의 인구는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며 서로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자원배분이나 사용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만을 강조하기보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자원배분과 사용을 강조하는 소비자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부의 불평등 편재와 미국문화에 의한 획일화에 맞서고, 다중심의 정체성과 다양한 삶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전통생활문화를 보호·유지·육성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한다. 세계 각국은 세계화가 가하는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양성, 전달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 유산 중 가장 독보적이고 뛰어난 것으로 외국인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다니엘 벨과 로소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러운 제도로 가족제도를 지적하였다(신용하, 1998). 한국의 가족제도는 애정배양의 기능에서 서양의 가족제도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효율성, 패락주의에 식상한 서구의 문화에 맞서 인정, 포용과 용서, 격려, 희생, 인내의 공동체적 가족윤리를 느끼게 하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문화산업의 육성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보편적 문화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는 상대방을 동등하게 상호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전 인류를 하나의 민주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가 형성되는 일차적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세계화 시대에 가정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1. 12. 12.
 경향신문, 2002. 3. 23.
 데이비드 엘킨드 저·이동원·김모락·윤옥경 역(1999).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루쓰 코완 저·김성희 외 4인 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1997.
 문화일보, 2002. 1. 21.
 사회와 철학 연구회(2001). 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이학사.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슨 저·이종인 역(2001).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서선희(1998). 21세기 사회와 한국가족. 한국가정과학회 1998년 총회 및 학술대회.

- 신용하(1998). 21세기 한국의 발전전략.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편. 변혁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백산서당.
- 신현중(1998).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 산경연구 제6집. 영남대 산경연구소. <http://yu.ac.kr/~shinhj/html/ra4.htm>.
- 신현중(2000). 20세기형 세계화와 21세기형 세계화의 비교분석.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http://yu.ac.kr/~shinhj/html/r.htm>.
- 안병선(2000). 문화산업. 매일경제신문사.
- 앤서니 기든스 저·한상진·박찬욱 역(1998).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 앨빈 토플러 저·홍갑순·심정순 역(1987). 제 3의 물결. 동아문예.
- 유가효(1998). 21세기 한국가정의 자녀교육규범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3차 총회 및 학술대회.
- 이용교·구정화(1995). 한국청소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연구. <http://youthnet.re.kr/new/m1-3/k1095-01.htm>.
- 장-피에르 바르니에 저·주형일 역(2000). 문화의 세계화. 한울.
- 중앙일보, 2002. 3. 36.
- 중앙일보, 2002. 4. 2.
- 한계레, 2002. 2. 9.
- 한스 피터 마르틴·하랄드 슈만 저·강수돌 역(1998). 세계화의 뒷. 영림카디널.